社 說

'대동'본질에의 접근

—개교 45주년 기념 대동제에 부쳐

개교 45주년 기념 대동제가 지난주 서울캠퍼스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구성원들의 관심과 열기속에 거행됐다.

올해의 대동제는 개교 4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해주었으며, 특히나 모든 경희가족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경희 화합 한마당'과 한의과 대학의 풍일 진료소 운영, 경희 의료원의 지역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참신하고 새로운 행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번 45주년 기념행사와 대동제에서 이처럼 의미있는 행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고 대학 본연의 모습들을 새겨볼 때 우리는 많은 우려와 염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학문화의 지나친 상업화와 퇴폐, 소비문화의 조장을 지적하고 싶다. 캠퍼스 곳곳을 점령한 주점들, 각종 판매행위의 성행, 기업의 상품홍보를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등에 가려져 대학이 지향해야 할 건강함과 비판적인 문화의 모습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대동제 행사였다.

또한 이번 대동제는 많은 볼거리들을 제공했을지는 몰라도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사였다. 인기가수들의 출연과 화려하게 포장되어진 각종 공연장에 유례없이 모여든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참여자가 아니라 단지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다. 대학 사회처럼 작은 공동체속에서조차 참여하는 문화는 만들어 지지 못함을 이해하기 힘들다. 원래 '대동제'라는 말은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거의 소비 향락에 치우친 축제문화를 배격하고 대동제라는 문화속에서 대학문화만이 갖는 건강함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인기연예인들의 막걸리 냄새로 덮여진 캠퍼스에서의 대동제는 그것이 갖는 원래의 의미를 무색케 했으며 과거 소비, 퇴폐문화로의 회귀를 보는 것 같아 염려가 앞선다. 대학문화의 생명력은 기성문화와의 차별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기성문화를 비판하며 새롭고 활력있는 젊은의 문화를 누리는 건강한 문화, 대학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사회조차 기성문화의 뒷모습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함을 잃은 문화이며 대중 추종주의적인 대학문화는 이미 대학문화가 아닌 것이다.

이같은 염려들은 결코 지나간 일들을 탓하고자함은 아니다. 다만 흥청거림과 화려함이라는 겉모습에 취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마련한 행사들의 건강한 의미마저 퇴색되어져 감을 안타까워할 뿐이다.

내부화합·대중지지 확보에 주력해야

—'제2기 한총련 출범식'에 앞서

제2기 한총련이 오는 27일 조선대에서 출범하게 된다.

비 민주적 군사정권하에서 조국 민주화의 큰 열망을 표방하며 투쟁의 대오로 자리매김됐던 전대협은 이제 한총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1백만 대학인의 연합조직으로 재편되었고 앞으로 전정한 대학사회의 대표체가 되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로서 대학사회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겠다던 한총련은 그 새로운 시도와 운영으로 많은 지지와 문제제기를 동시에 받고 있다.

X세대 문화로 지칭되어지는 대중성향의 변모를 겪으며 한총련은 얼마나 영향력 있는 대표체로서 자리매김 되어 왔는가.

지난해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운동권은 최근 2~3년동안 빠르게 변해왔다. 그 주요경향으로 두드러진 것은 선거때 내세웠던 공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공약들에서 후보들은 학내 복지사안개선과 취업대책 등 시대적 요청에 이바지하는 공약들로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 충족과 대학생활의 질적 향상을 약속했었다. 각 대학 총학생회의 사업내용은 그간의 정치투쟁일변도의 사업내용을 벗어나 그 범위를 넓히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총련이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라는 대학사회 전반에 걸친 연합체를 지향하는 것도 이와 같은 학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 대중속의 공동체로서의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1백만 대학생의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는 의지였으리라 본다. 또 그간 총투표 총파업으로 가시화 되었던 쌀수입개방 불가투쟁 등 정치투쟁과 더불어 학원자주화 투쟁 등을 전개한 것도 이러한 요구를 강력히 반영한 것이었다.

한총련은 현재 사상적으로 이전에 비해 훨씬 다원화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조국의 민주화라는 하나의 커다란 이념적 짓밟아래 뭉칠 수 있었던 문민정부 이전과는 달리 대학사회의 주체들이 각양각색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총련은 이러한 목소리들을 조율하여 대학사회 전체의 주장으로 표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목소리가 때로 전체의 주된 의견에 대치되는 것일지라도 반대의견을 가진 소수불 존중하고 동화시킬 때에만 결집된 하나의 목소리는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고 추진력을 얻게 되며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치열망을 반영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총련은 출범 1년동안 빠르게 변모된 학생운동의 현주소를 몸소 체험하며 이전 전대협시절보다 대중투쟁의 면에 있어 적지 않은 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총련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학인들의 의식속에 더욱 깊숙히 뿌리내린 조직으로 다시한번 재정비되기 위해 먼저 안으로의 화합에 힘써야 하고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얻을수 있는 사업방향을 찾아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긴급진단 …'김현철씨 자금수수의혹'사건을 통해본 현 정부의 언론정책

보도지침 "되살아나다"

◇문민정부시대에도 5·6공과 다름없이 언론통제는 여전하다.

Ⅰ

정부의 언로봉쇄는 어디까지 가야 종말을 고하려는지, 최근 '김현철씨 자금수수의혹'과 관련해 기성언론이 보여준 복지안동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변호사인 이충범 전 청와대 사정 비서관이 대선때 무허가 한약업사 양성화와 관련해 1억여원을 받았다는 지난달 26일자 신문보도 이후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 다른 언론사에서는 목묵부언이었다. 문민정부라고하는 시대에 자유언론의 희생은 커녕 통제와 현실타협이 내비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내린 보도지침이 없을 뿐 그 실상은 5·6공 시절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요즈음 세태이다.

한약업사 정재중씨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는 사회면의 한 문장짜리 1단 기사가 27일자 신문에 나온 후 김영삼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씨가 한약업사 정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다음날 '한겨레신문'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는 1단 기사들이 일간지마다 게재되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경우 한약업사 정씨의 경찰과 검찰 진술을 바탕으로 1억2천만원이 정치자금으로 전달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각각 사회면 3단 크기이상의 지방판 신문에 게재했으나 서울시내에 배달되는 시내판에서는 모두 빠지고 정씨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는 1단기사만을 내보냈다. 세계일보의 경우는 사회면 톱으로 실렸다가 조판 직후 갑자기 누락되었으며 조선일보에서도 1단으로 줄어들었다.

사회의 양심의 소리는 아직도 살아있다. 김현철씨의 한겨레신문 제소에 대해 청회를 요구하며 비리를 떳떳히 밝힐 것을 언로를 통해 각성시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른말은 귀에 거슬린다'고 했는데 직언을 사장시키려드는 청와대측의 노력이 안쓰럽다.

Ⅱ

1964년 박정희 군사정권의 한일협정비준에 반대하여 학생이 중심되어 일어난 것이 6·3사태였다. 정부는 같은날 서울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이것이 29일 해제되면서 공화당은 '언론윤리위법안'을 국회에 단독 제출, 이 법안은 8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6·3사태위기에 직면해 정부의 성급한 이 조치들에 언론인들은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17일 한국기자협회가 창립되면서 '비민주적인 언론윤리위 법안의 철폐'를 주장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23일 '언론윤리위 법안의 폐기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법에 찬성한 일부 받행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언론계 밖에서도 거센 저항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9월 2일, 제야 정당과 사회단체는 '자유언론수호 국민대회반기준위원회'를 구성, 경고장을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및 서울시내 10개 대학신문 기자들이 법안반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언론자유수호의 열기는 대단했다.

이 반대여론은 9월 9일 박상길 청와대 대변인으로 하여금 이 법안의 공포를 보류한다는 발표를 하게 만들었다.

6·3사태 이후 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기업의 경영주에 대한 회유, 압력 등 언론계는 자체내에서 분단과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 이것은 언론윤리위원회 법안 반대투쟁때 일부 발행인의 투항적 모습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박대통령의 이런 '언론길들이기 술수'로 그 당시 언론인들은 사주(社主)와의 갈등, 외부기관의 압력 등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Ⅲ

5공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혹독한 언론통제를 시행했다. 6공이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12·12군사쿠데타와 광주시민의 대학살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를 축으로 일부 정치군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통성에 큰 오점인 민중의 산인 행위와 반란을 은폐, 조작하기 위해 언론에 손을 뻗쳤다.

군사정권 종식돼도 언론통제 여전

진상규명 위해 언론의 비판·자율성 되찾아야

5공의 많은 악법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언론기본법'으로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 발행정지 권한을 문공부장관이 쥐고 있었다. 그리고 언론의 취재·보도활동에 간섭과 조작을 하고 5공 언론정책의 실체인 '보도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주요사건에 대해 보도할 내용과 하지 말아야 할 내용, 사진게재 여부, 지면 배치, 제목의 크기까지 자세히 지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때 신문들이 똑같을 수밖에 없었다.

80년 5월 28일 관제언론의 선봉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광주시민을 학살한 계엄군을 극찬하였다. 이처럼 보도지침에 충실히 따라준 관제언론들에게 경제적 혜택이라는 보상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광주항쟁 보도 등과 관련, 일부 양심있는 기자들이 언론검열과 계엄령철폐를 요구하며 계작거부운동을 벌이자 언론 대탄압에 나섰다. 같은 해 7월 언론인들에 대한 일괄사표를 강요한 뒤 미리 명단에 들어 있던 대상자들만 사표를 수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강제해직편법은 그때 해외여행중이거나 사표제출을 거부한 사람들도 명단에 올라있는 경우 모두 해직되었다. 당시 강제 해직된 언론인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가 89년 6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모두 8백70명, 그리고 80년말 통폐합 관련 해직자도 3백5명이나 된다.

그 당시 권력자들은 또한 80년 11월 일제시대부터 민족지라는 명분아래 민족과는 상반된 입장을 대변해온 제도언론의 몇몇 경영주들과 공모, 전국의 63개 언론매체중 신문 11개, 방송 27개, 통신 6개 등 총 44개 언론사를 통폐합시켰다. 이렇게 해서 언론사는 일간종합지가 조·석간 각각 3개, 경제지가 조·석간 각각 1개, 영자지 2개와 지방지는 1도에 1사로 재편되었다. 통신사는 연합통신 하나로 통폐합되고 방송사는 KBS와 MBC 등 2개 공영방송체제로 통합되었다.

이후 89년 국회청문회에서 허문도씨는 언론통폐합은 자신이 입안했으나 강제해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뺌했다. 언론사주들도 보안사로부터 받은 명단대로 해직시켰을 뿐 더 추가시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노정권은 이전에 '6.29선언'에서 '언론은 장악할 수 없고 장악해서도 안된다'는 기만적인 제스처를 했다. 그러나 88년 12월 드러난 문공부의 매체조정 활동계획에 따른 '언론인 개별접촉 보고서'로 5공과 차이없이 언론을 통제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기사축소 또는 삭제, TV뉴스 방송의 경우 뉴스순서와 시간조정요구 등 이 '언론인 개별접촉'은 보도지침과 다를 바 없었다. 또한 문목사의 방북에 대한 정부측의 편향적 보도와 부산 동의대사건의 과대보도 등 기성언론은 사회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이다.

현 문민정부라고 다른점이 무엇인가. 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라면 언론의 자율과 비판을 인정하며 언론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한다. 언론 또한 정부의 통제와 지도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모두가 다시 한번 자성해야 할 때이다. 〈고혁민 記者〉

이제 우리의 상대는 세계입니다.—① MIT를 찾아서

신경은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 세계 일류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에 대비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주역이 될 이러분—
누앙 돌러 세계를 바라보며 준비하십시오. 세계화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그날을 이제 우리의 상대는 세계입니다.

●기숙사 모정해관 앞의 MIT 생들

(•지옥에 반쯤 왔습니다•)

"Halfway To Hell"

MIT 입구에서 마주친 색다른 이정표—

미국 대학의 커다란 기둥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그 북문을 연결하는 하버드 브릿지에 이르면 •지옥에 반쯤 왔습니다•라는 푯말과 마주치게 된다.
MIT의 주인들이 치러야 할 처절한 경쟁과 험난한 학문추구의 과정을 드러내는 분구 속에는 이들의 자부심이 담겨있음을 느끼게 한다.
세계최초의 레이다와 각종 첨단 기기들이 이곳 링컨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MIT는 "머리와 손은 일치해야 한다"는 실용주의 학풍아래 산업재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산업 경쟁력의 산실임을 자부하며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앎의 세계를 추구함에 주저함이 없는 MIT—
그곳에는 눈덮인 교정을 뚫고는 자유로운 사랑의 봄잣내인 진리 탐구의 진지함이 미국 과학 기술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 가고 있었다.
자신들의 캠퍼스를 지옥이라 서슴없이 부르는 MIT의 주인들—
그들의 모습에서 그 이름의 무게는 미국 학술원 1천 200명 회원중 100여명을 차지하는 교수진과 30여개의 첨단 실비실 사랑하는 연구시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낭만과 자유를 묻어두고 그저 남보다 조금 더 성취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추구하는 보통 사람들이 이룩한 것임을 알수 있었다.

■1983년 무학사점 MIT 화공과연구실에서의 필자
선경그룹 경영기획실 나승진 부장

SUNKYONG
鮮京그룹